

재한(在韓) 베트남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 및 주생활 :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Housing and Domestic Living of Vietnamese Immigrant Workers  
Who were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in Korea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 전공  
연구 교수 이 영 심  
교 수 최 정 신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Professor : Young Shim Lee

Professor : Jung Shin Cho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해석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의 배경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ate of Vietnamese housing in Korea. Using ethnographic methodologies, it was examined that 22 Vietnamese households in Korea in relation to their usage of housing space.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established; 1). Most of households had kitchen+1 or 2 bedrooms and the majority households preferred separated kitchen and living room areas. 2). Most households had a washing machine in bathroom and they regarded bathtub as not very necessary. They all preferred the bathroom with enough space for using washing machine and hand washing both. 3). Their preferred seating style was using chairs on sleeping as like in Vietnam but they preferred eating without chairs and treated large family and guest without chairs specially. 4). All of them were took their shoes off usually and preferred designated shoes space at the entrance to the house which was not used in Vietnam. 5). A Floor material of all households was vinyl on living room and bedrooms and most of them who had been using tile only in Vietnam preferred vinyl here. 6). All of households had a modified Ondol and most of them who had never been used this before preferred and they regarded as a desirable heating system. 7). They considered the kitchen as the most important housing space and the direction of housing was the one to consider when they built or buy the house.

Corresponding Author : Young Shim Lee,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era, 43-1 Yokgok2-dong, Wonmi-gu, Buchen city, 420-743, Korea Tel:+82-2-2164-4836 Fax:+82-2-2164-4301 E-mail:yslee99@hanafos.com

\* 본 논문은 2009년도 학술진흥재단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연구과제번호: C00074)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주제어(Key Words) :** 이주 노동자(immigrant workers), 베트남인(Vietnamese), 주거 공간(housing space), 주생활(domestic living), 기거 양식(seating style)

## I. 서론

국제이주기구(IOM)는 전 세계적으로 이주자의 수가 1970년의 8,150만 명에서 2000년에는 1억 7,490만 명으로 30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최근 들어 이러한 이주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통 이민국가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확산되고 있다(매일경제, 2008.2.5). 2008년 1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1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20년에는 그 수가 253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매일경제, 2008.2.5)<sup>1)</sup>. 특히 국내 이주 노동자의 수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오늘날의 이주가 경제적인 요인에 기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한국일보, 2008. 4.21). 1980년대 말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 노동자들은 현재 그 출신 국가가 100여 개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해졌으며 이들이 종사하는 업종 또한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sup>2)</sup>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청, 장년층의 생산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율은 2004년의 2.9%에서 2007년에는 3.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정부는 외국 인력의 국내 일자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10년 주기의 인력수급 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적정 외국 인력의 도입 규모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노동부, 법무부 보도자료, 2008).

이제까지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경제와 관련법을 분야 등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들과 관련한 주거 분야에서의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었다. 경기개발연구원(2006)과 국가인권위원회(2002)는 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실태가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주거 상황, 취업 형태, 수입,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중앙일보, 2007.7.8).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인 지원은 보다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들의 주거와 관련한 연구 및 지원 또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조선족(朝鮮族)을 그 첫 연구 대상으로 하여 길림성 거주 조선족과 재한 조선족의 주거 및 주

생활에 대한 비교(이영심, 최정신, 2007)를 하였으며 두 번째는 고려인(高麗人)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구소련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재한 고려인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비교(이영심, 최정신, 2008)를 하여 그 결과 재한 조선족과 재한 고려인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계획 요소를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그를 잇는 세 번째 연구이며 그 연구 대상은 재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이다. 1992년 한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베트남은 1998년부터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 양국 간 외국인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최근에는 결혼 이민자들까지 더하여 베트남인들의 국내 유입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주거에서의 공간 사용 및 만족 정도 그리고 요구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주거문화 요소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수행할 예정인 베트남 현지(現地)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내용과 비교 분석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 계획 시 실용적인 주거 계획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지역의 선정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서 베트남인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성동구, 성북구 등과 경기도의 안산시와 성남

- 1) 작년 말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전체의 47.2%가 중국인으로 50만 명이며 다음으로는 미국(11만 명), 베트남(7만 명), 필리핀(5만 명), 태국(4만7천명), 일본(4만1천명) 등의 순이다. 현재 11만 명에 이르는 국내 결혼 이민자의 수는 2050년에는 81만 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매일경제, 2008. 2.5).
- 2) 이주 노동자 유입의 초기였던 1989년-1991년에는 조선족(朝鮮族)과 필리핀인이 대부분이었으나 1994년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노동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고용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제조업이다(석현호, 정기선, 이정환, 이혜경, 강수달, 2003)

시 그리고 인천직할시 등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하여 2008년 7월 8일-9월 12일에 수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은 약 6만여 명이며<sup>3)</sup> 그 중 수도권 지역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은 성동구이다<sup>4)</sup>. 베트남인들이 성동구 지역에 집중하여 거주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동대문과 가까워 봉제공장이 많으며 마장동의 축산시장 그리고 성수동의 공단이 가깝기 때문이다.<sup>5)</sup> 또한 경기도와 인천 등지에도 베트남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서울의 성동구와 경기도 안산, 인천직할시 지역 등을 재한 베트남인의 주거 및 주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상의 지역을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사진 1)(사진 2).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성동구(12사례)와 성북구(3사례), 노원구(2사례), 마포구(1사례), 경기도 안산시(1사례)와 성남시(1사례) 그리고 인천시 중구(1사례)와 계양구(1사례) 등에 거주하는 베트남 가정 22가구를 방문하여 주부와 면담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일반적인 이주 노동자 뿐 아니라 결혼 이민자로 한국에 왔다가 이주 노동자가 된 경우 그리고 이주노동자로 왔다가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sup>6)</sup> 모든 경우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였다. 이는 원 거주지인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주거 이동을 한 후 이곳에서의 주생활을 경험하고 그 결과 현지의 관습을 지속하거나 혹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 동화되는 등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호치민 등의 남부 지역 출신이 12사례 그리고 하노이 등의 북부 지역 출신이 10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은 남부와 북부 지역이 기후 뿐 아니라 생활관습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평가되므로 이러한 구성은 지역에 따른 주생활 관습의 차이를 관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수 사례를 심층 분석하는 일종의 질적(質的) 연구인 문화 기술적 현장연구(Ethnographic field study)<sup>7)</sup>의 틀을 사용하였고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각 가정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주부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는데 질문지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자의 관찰에 따른 추가 질문을 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주공간 사용과 주생활로써 주공간 사용은 거실, 식사실, 부엌의 유형, 각 공간별 계획과 평가 등을 포함하며 주생활은 활동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 그리고 공간별 바닥재 및 난방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자들의 원 거주지에서의 주공간 및 주생활 내용을 파악하여 현재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사진 촬영과 실측을 허가한 주택에 한하여 주택의 내, 외부를 촬영하고 필요한 부분들

실측하였다. 주공간 유형, 부엌, 난방의 만족 정도 그리고 주택 전반적인 만족 정도에 대하여 아주 만족한다(5점)-아주 불만족하다(1점)의 5단계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써 이를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사진 1〉 재한 베트남인 집거지역인 성동구 다가구 주택가



〈사진 2〉 한옥주택을 개조한 성북구 다가구 주택가

- 3) 국내의 결혼 이민자의 수는 2003년 44,416명에서 2007년에는 110,36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 중 베트남 출신은 23,30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결혼 이민자의 56.6%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프라이임경제, 2008.5.19).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의 수는 2008년 현재 약 60,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4) 서울시 성동구 지역에는 베트남, 타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 1천 명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베트남인 407명, 필리핀인 43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외에도 불법체류 형태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베트남인만 2천여 명이 거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겨레 21, 2007.10.2).
- 5) 성동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선동수 상담팀장(2008. 6.2)은 2000년 초반에는 서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많았으나 최근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동구 지역에는 필리핀인들보다 베트남인들이 많은데 이 지역에 베트남 인들을 위한 공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 6)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이주 노동자로 온 경우(9사례), 이주노동자로 와서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2사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온 경우(4사례), 결혼이민자로 와서 이주 노동자가 된 경우(2사례), 결혼 이민자로 와서 일하는 경우(1사례), 결혼이민자로 와서 현재 주부인 경우(4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7) 문화인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문화 기술적 현장 연구는 관찰과 면담 위주로 기록하고 분석을 하며 그 결과가 다음 단계의 관찰과 면담을 이끌어내는 순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이희봉, 1998).

### III. 연구의 배경

#### 1. 베트남인 이주 노동자의 원 거주지 및 국내 거주지의 특성

동남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베트남은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그리고 남쪽과 동쪽은 태평양과 접하고 있다(그림 1). 열대몬순기후 지역에 속하나 변형된 몬순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북부는 건기가 거의 없다. 일조량과 강우량이 풍부하여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이기도 한 베트남은 54개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베트남족(경족)이 90.0%로 가장 많다.

베트남은 기원전 111년 북부 베트남 지역이 한나라에 합병된 이래 1,000년 이상 중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938년에 응오꾸엔 왕조가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1406년 이후 다시 명나라의 속국이 되었다.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전쟁을 계속한 끝에 1802년 응웬왕조가 왕권을 찬탈하였으나 1887년에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점령하면서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의 3개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1940년에 일본의 인도차이나 점령 후 호치민을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1954년에 프랑스가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패하면서 북위 17도를 경계로 북쪽에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이 남쪽에는 베트남공화국이 설립되었다. 1964년부터 시작된 남북 간의 전쟁은 1975년에 호치민이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끝이 났으며 1976년에는 하노이를 수도로 하는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이후 1986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도이머이(쇄신)정책을 선언하고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연평균 7-8%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등 점차 경제가 향상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가장 큰 도시는 남부의 호치민으로 약 5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다음은 북부의 하노이로 약 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부션투이, 2002).

현재 동아시아에는 약 1,900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존재하는데 이는 전 세계 이주자의 13.1%를 차지하는 수이다. 베트남은 동아시아에서 중국, 필리핀에 이어 이주노동자를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들은 대부분 비숙련, 반숙련 노동자이고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아시아의 친구들, 2008.2.6). 베트남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으로 이때의 인원은 약 1,000명 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에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인력송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만여 명의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약 4천 개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유엔 티 항, 2008)<sup>8)</sup>.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은 이주 전에 비하여 8배가 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국내 이주 노동자들 중 그 비율이 가장 높

은 것이다(석현호, 정기선, 이정환, 이해경, 강수돌, 2003).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을 한 베트남인들은 베트남 현지에서도 평균 임금의 2배에 달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많은 베트남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며 또한 베트남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습득한 기술을 베트남의 산업에 활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안동지역 외국인이주여성회, 2007.6.28). 한편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인의 결혼을 통한 이주는 또 다른 형태로 재한 베트남인의 이주 노동력을 증가시키고 있다.<sup>9)</sup>

우리나라는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이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sup>10)</sup> 경기개발연구원(2006)이 이주노동자들의 밀집 거주지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높은 임대료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택 부족 그리고 주택 정보가 불충분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동거인의 수가 연립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2008)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을 조사한 결과 방 크기와 수용 인원 그리고 주거 시설 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1)</sup> 우리나라는 2015년에는 63만 명, 2020년에는 152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앞으로 재한 이주 노동자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주

8) 2008년 8월 2일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신한은행이 주최한 '재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의 날'에 유엔 티 항 베트남 노동보훈 사회부장관이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축사를 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9)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은 2008년 현재 2004년에 비하여 136.5%가 증가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결혼을 통하여 국내에 들어온 이민자들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일을 시작하거나 혹은 파경으로 인하여 이주 노동자가 되기도 한다.

10) 2004년 8월부터 실시한 고용허가제는 우리 정부와 인력 송출국과의 사이에 협약(MOU)을 체결하여 정부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만이 외국인력 송출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이주 노동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혹은 고용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류 기간도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정경제부, 2006.11.07).

11)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64.0%가 회사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방 크기가 6.6㎡ 이하인 경우가 47.2%였고 3.3㎡의 방에 거주하는 경우의 45.0%, 6.6㎡의 방에 거주하는 경우의 61.0%가 3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사무실이나 가건물에서 자는 사람도 12.5%가 있었다. 숙소 내에 샤워시설이 없거나 화장실이 없는 경우는 각각 8.0%, 4.0%였으며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도 21.0%나 되었다(연합뉴스, 2008. 10.22).



〈그림 1〉 조사대상 지역인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나아가 이상적인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줄 것이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폐쇄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그리고 다시 개방경제로 전환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 인구의 60.0%가 27세 미만의 연령으로 젊은 인력이 많은 나라이다. 이로 미루어 앞으로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들의 주거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 IV. 결과해석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30세-39세가 15사례로 가장 많았고 20세-29세가 5사례 그리고 40세-49세가 2사례였으며 평균 연령은 33.2세였다. 평균 가족 수는 2.9명이었으며 가족 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8사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 5사례로 구성된 경우(5사례)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여자였

택 계획 역시 양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이들의 주거문화를 고려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한데 이는 바람직

〈표 1〉 재한 베트남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사 례	이 름	나 이	성 별	가족 수	가족 구성	학 력	직 업	월소득 (만원)	출신지역 (남/북)	출신지 주거형태	현재주 택형태	침실 수	임차비용 (만원)	국내거주 횟수
1	M씨	34	여	3	부부+아이1명	고졸	미싱일	200	호치민(남)	단독주택	다가구	2	38	4년
2	T씨	38	여	3	부부+아이1명	중졸	미싱일	140	호치민(남)	단독주택	다가구	1	20	3년
3	B씨	34	여	3	부부+아이1명	중졸	주부	100	하이퐁(북)	단독주택	단독주택	1	소유	2년
4	L씨	47	여	1	단신(單身)	고졸	미싱일	100	호치민(남)	단독주택	다가구	1	22	6년
5	I씨	38	여	4	부부+아이2명	중졸	가게관리	100	호치민(남)	단독주택	다가구	2	20	16년
6	M씨	33	여	2	부부	대졸	미싱일	100	하노이(북)	단독주택	단독주택	1	17	8년
7	H씨	35	여	3	부부+친구1명	중졸	미싱일	100	호치민(남)	단독주택	다가구	2	30	4년
8	C씨	33	여	3	부부+아이1명	대학중퇴	통역	200	호치민(남)	단독주택	아파트	2	6,000	7년
9	B씨	37	여	4	부부+아이2명	고졸	미싱일	300	호치민(남)	단독주택	다세대	3	5,000	15년
10	E씨	41	여	2	부부	고졸	미싱일	150	하노이(북)	단독주택	다가구	1	20	14년
11	K씨	36	여	2	본인+딸1명	고졸	번역,통역	100	봉타오(남)	단독주택	다가구	1	1,800	15년
12	W씨	36	여	2	부부	대학중퇴	미싱일	150	빈푹(북)	단독주택	다가구	2	35	7년
13	P씨	35	여	2	주부+남동생	고졸	미싱일	180	호치민(남)	단독주택	다가구	2	35	8년
14	D씨	32	여	3	부부+시누이	대졸	번역,통역	300	하노이(북)	단독주택	아파트	4	9,000	3년
15	J씨	26	여	4	부부+아이2명	초등졸	주부	200	호치민(남)	단독주택	아파트	3	소유	5년
16	U씨	21	여	4	부부+시부모님	고졸	주부	150	빈(북)	단독주택	다세대	4	소유	2년
17	M씨	26	여	2	본인+친구	중졸	미싱일	160	하이퐁(북)	단독주택	다가구	1	20	5년
18	T씨	25	여	4	부부+아이2명	중졸	주부	200	빈푹(북)	단독주택	아파트	2	소유	4년
19	G씨	35	여	2	부부	고졸	미싱일	100	하이빙(북)	단독주택	다가구	1	20	8년
20	B씨	33	여	4	부부+아이2명	전문대	주부	50	호치민(남)	단독주택	단독주택	1	2,500	3년
21	V씨	31	여	4	부부+아이+언니	중졸	미싱일	110	동나이(남)	단독주택	다가구	2	6,000	2년
22	M씨	24	여	2	부부	중졸	미싱일	130	하이퐁(북)	단독주택	다가구	1	25	3년

주. 조사대상자의 이름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문 약자로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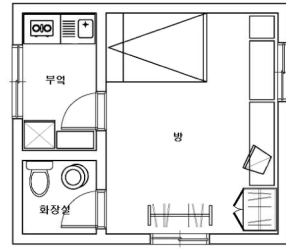
며 이들의 학력은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9사례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봉제 공장 등에서 미싱 일을 하는 경우가 13사례로 가장 많았다.<sup>12)</sup> 이들의 소득정도는 월 100만원-150만원이 13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월 소득은 151만원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재한 고려인의 경우보다 약간 높고 재한 조선족의 경우보다는 약간 낮는데<sup>13)</sup> 한국노동연구원(2001)이 조사한 재한 이주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인 99만원보다 높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중간 이상의 소득계층으로 파악되었다.<sup>14)</sup> 주택 형태는 다가구 주택이 13사례였으며 이 외에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었다. 재한 베트남인의 집세 지불 방식은 월세인 경우가 12사례였고 전세인 경우가 6사례였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4사례였다.<sup>15)</sup> 월세 지불 방식으로 거주하는 경우 비용은 월 평균 25.2만원 이었으며 전세인 경우 그 비용은 2,500만원-9,000만원으로 평균 비용은 4,750만원이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 소득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15%인 경우가 4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16-20%인 경우와 10% 이하인 경우가 각각 3사례씩 그리고 21-25%인 경우가 2사례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월 거주지는 남쪽의 중심도시인 호치민과 북쪽의 중심도시인 하노이 등이었는데 지역별로 분류하면 남쪽에서 거주한 경우가 12사례 그리고 북쪽에서 거주한 경우가 10사례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원 거주지에서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였는데 단층주택이 15사례, 복층주택이 7사례였다.

2. 주거공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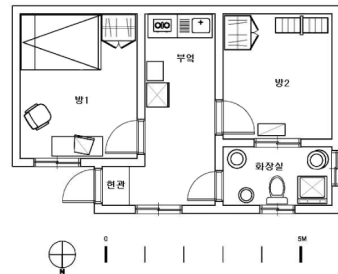
1) 주거 공간의 유형 및 평가

조사대상 주택의 주거 공간 유형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 주택 중 가장 많았던 유형은 독립된 부엌과 방으로 구성된 유형으로써 부엌 + 방1칸이 9사례(20.0%)로 가장 많았으며 부엌 + 방2칸이 8사례(15.0%) 그리고 부엌 + 방4칸이 한 사례였다 (그림 2; 그림 3). 이들 중 7사례(31.8%)가 부엌과 방의 바닥 높이가 다르고 부엌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어 두 공간을 오갈 때 신발을 신고 벗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부엌 유형에 대한 만족 정도는 우선 부엌 바닥이 타일인 경우와 비닐인 경우를 비교하면 부엌 바닥이 타일인 경우의 만족 정도는 평균 3.0점이었으며 비닐인 경우는 평균 3.2점으로 약간 더 높았다. 부엌, 거실, 식사실이 한 공간에 통합된 경우의 만족 정도는 평균 3.3점이었으며 원룸 형식의 경우는 평균 2.0점으로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 주택의 부엌 유형을 분리형과 통합형으로 구분하여 그 만족 정도를 살펴본 결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는 유형이 평균 3.2점으로써 통합되어 있는 경우(평균 3.0점)보다 약간 더 높게 평가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원 거주지에서의



(그림 2) 부엌1칸과 방1칸으로 구성된 사례(안양동 M씨택)



(그림 3) 부엌1칸과 방2칸으로 구성된 사례(왕십리동 M씨택)

주거 공간 유형은 거실 + 분리된 부엌인 경우가 14사례 (66.7%) 그리고 부엌을 외부에 별채로 둔 경우가 5사례 (23.8%)였으며 부엌 공간이 없고 마당에서 조리한 경우가 2사례(9.5%)였다.<sup>16)</sup> 그러나 주택 내부에 부엌이 있었던 경우 중 절반(7사례 : 50.0%)이 부엌에 출입문이 없었으며 벽 혹은 커튼 등으로 공간을 구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기타 지역과 다른 베트남 주택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조사대상

12) 조사대상자들의 가족형태가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18사례)에 주부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으며 나머지 4사례 역시 여성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형태로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13) 선행연구에서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의 평균 월 소득은 164만원이었으며 재한 고려인 이주 노동자들의 평균 월 소득은 131만원이었다(이영심, 최정신, 2007; 이영심, 최정신, 2008).  
 14) 한국노동연구원(2001)이 재한 이주 노동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경우의 70% 이상이 중국 이외의 지역 출신들이었고 이 경우 대부분 2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월 급여는 99만원 정도였고 근로시간은 월 273시간 정도였다(박채란, 2004).  
 15)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4사례의 조사대상자들은 결혼 이주자이며 현재 주부이다. 한편,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6사례의 조사대상자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혹은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경우로 1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을 하고 있다.  
 16) 1사례는 조사대상자가 주택 건물의 아래층에서 식당을 경영한 경우로 주택 내에 별도의 부엌 공간이 없었다.  
 17) 조사대상자들은 베트남의 주택 내부에 있는 부엌에 문이 없는 이유로 냄새가 잘 나가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문이 있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등을 들었다.

〈표 2〉 재한 베트남인의 주거 공간 연결

N = 22

유형		f(%)		만족 정도		
부역분리형	타일바닥	부역 + 방 1개	6(27.3)	7(31.8)	3.0점	
		부역 + 방 2개	1(4.5)			
	비닐바닥	부역 + 방 1개	3(13.6)	11(50.0)		3.2점
		부역 + 방 2개	7(31.8)			
부역통합형	LDK + 방3개	부역 + 방 2개	1(4.5)	3(13.6)	3.0점	
		부역 + 방 4개	2(9.1)			
	원룸 형식	LDK + 방4개	1(4.5)	1(4.5)		2.0점
		원룸 형식	1(4.5)			
계		22(100)				

자들의 59.0%(13사례)가 부역을 거실과 분리하여 계획하는 것을 희망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조사대상자의 45.5%(10사례)가 부역에 문이 없어도 좋다고 응답하여 이들을 위한 계획은 뚜렷한 분리형 혹은 통합형 보다는 두 유형이 적절하게 조합된 유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재한 고려인과 조선족 모두 부역이 기타 공간에서 분리된 유형을 선호했던 결과와 뚜렷하게 다른 것이다(이영심, 최정신, 2007; 이영심, 최정신, 2008). 이러한 결과는 원 거주지의 자연 환경과 주거 문화 등의 영향으로 사료되며 이는 앞으로 수행할 베트남 현지(現地)조사를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부역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조사대상 재한 베트남인의 부역에 대한 만족정도는 평균 3.1점으로 보통의 수준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재한 고려인의 경우(평균 3.3점)보다는 낮고 재한 조선족의 경우(평균 2.5점)보다는 높은 것이다. 여기에는 부역과 방의 바닥 높이 차이 그리고 부역의 바닥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조사대상 주택의 경우 부역과 방의 바닥 높이에 차이가 있고 부역 바닥재가 타일인 경우가 7사례(31.8%)인데 비하여 재한 고려인은 이러한 경우가 1사례(5.0%)에 불과하였고 재한 조선족은 16사례(82.4%)로 가장 많았다(사진 3; 사진 4). 그러나 세 경우 모두 부역에서의 불편한 점으로 부역 면적이 좁은 것을 지적함으로써 이들의 부역에 대한 만족 정도는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평가로 사료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7; 이영심, 최정신, 2008).<sup>18)</sup>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김치(19사례 : 86.4%)와 된장(17사례 : 77.3%)을 먹고 있었는데 이 중 9사례(40.9%)는 김치를 직접 담그고 있었으며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부역의 협소함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역 바닥이 타일인 경우 외에는 모두 부역에 바닥 난방이 되고 있었고 온수가 공급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모두 냉



〈사진 3〉 부역1칸과 방1칸으로 구성된 사례(송정동 T씨택)



〈사진 4〉 부역1칸과 방2칸으로 구성된 사례(왕십리동 M씨택)

장고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냉장고를 부역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에서 14사례(63.6%)였으며 나머지(8사례 : 36.4%)는 부역의 협소함으로 방에 두고 있었다. 부역의 작업대는 가스레인지와 개수대로 구성된 2조식 구성이 13사례(59.1%)로 가장 많았으며 연료는 모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부역에서 온수 사용이 가능하고 냉장고를 사용하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것 등은 이들의 원 거주지에서보다 더 편리한 생활 여건이라 할 수 있으나 평균 1.5m ×

18) 재한 베트남인의 11사례(50.0%), 재한 고려인의 14사례(70.0%), 재한 조선족의 12사례(70.6%)가 부역에서의 불편한 점으로 부역 면적이 좁음을 언급하였다(이영심, 최정신, 2007; 이영심, 최정신, 2008).

2.8m의 부엌에서는 대부분이 활동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sup>19) 20)</sup>

3) 욕실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조사대상 베트남인 주택은 주택 내에 욕실이 있는 경우가 16사례(72.7%)였으며 없는 경우가 6사례(27.3%)였다. 주택 내에 욕실이 없는 경우는 화장실이 주택의 외부에 있는 경우로 대개 2-4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택 내에 욕실이 있는 경우의 형태는 변기와 수도 시설로만 구성된 경우가 10사례(62.5%)로 가장 많았으며 세면대, 변기, 욕조 등으로 구성된 배스 유닛(bath unit)은 3사례(13.6%)로써 욕조가 있는 경우는 전체에서 3사례(13.6%)에 불과하였다(표 3). 이들의 원 거주지에서의 욕실 형태는 1개 혹은 2개의 배스 유닛과 기타 설비 등으로 구성된 경우가 36.4%(8사례)로써 이들은 모두 욕조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sup>21)</sup> 그러나 이들 중 욕조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사례에 불과하였으며 욕조의 사용 경험과 관계없이 전체에서 7사례(31.8%)만이 욕조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들에게 욕조는 필수적이지 않은 설비로 사료되었다. 욕조에 대한 필요 정도가 낮은 결과는 제한 조선족의 경우와 유사하고 제한 고려인의 경우와는 대조되는 것이다(이영심, 최정신 2007; 이영심, 최정신, 2008). 베트남인과 조선족이 고려인에 비하여 욕조에 대한 요구 정도가 낮은 것은 이들의 목욕 관습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려인의 경우 서양 문화권인 구소련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욕조 안에서 목욕하고 샤워하는 서양의 목욕 관습에 동화되어 온 반면 동양 문화권인 중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조선족은 서양식의 욕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다. 또한 베트남인의 경우 항상 무덥고 습한 환경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야외에서 우물물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샤워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sup>22)</sup> 조사대상자들의 욕실에 대한 만족 정도는 평균 2.9점으로 높지 않았는데 조사대상자들 중 68.8%(11사례)가 욕실에서의 불편한 점으로 비좁음을 들고 있어 욕실에 대한 불만족은 설비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충분하지 않은 면적 때문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욕실 계획 시 욕조 등의 설비 보다는 충분한 면적 확보를 우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조사대상 주택 내에 욕실이 있는 경우는 모두 가스 난방을 겸하여 온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원 거주지에서 전기온수기를 사용한 조사대상자들은 전체에서 6사례(27.3%)에 불과하였으며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이곳에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생활에서 편한 점으로 언급하였다. 한편 주택 내에 욕실이 없는 경우는 부엌에서 조리과 세탁 그리고 샤워 등 물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표 3〉 조사대상 주택의 욕실 유형

		N = 16
주택의 욕실 유형		f(%)
변기 + 수도시설		10(62.4)
배스 유닛(bath unit)		3(18.7)
유형	배스 유닛 + 변기, 샤워기	1(6.3)
	세면대, 변기, 샤워기	1(6.3)
	세면대, 변기, 샤워기 + 변기, 샤워기	1(6.3)
계	16(100)	

주. 배스 유닛(bath unit) : 세면대, 욕조, 변기의 3가지 설비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함.

다층 주택의 경우 각 층마다 욕실을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중 원 거주지에서 다층 주택에 거주한 7사례(31.8%) 역시 각 층마다 욕실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현재 이곳에서 부엌과 욕실을 겸하여 사용하는 6사례(27.3%) 중 원 거주지에서 다층 주택에 거주했던 경우가 2사례(33.3%)로 이들은 그 불편함이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되었다.

4) 세탁 공간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조사대상자들은 1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세탁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세탁기의 위치는 욕실과 부엌 그리고 베란다 각 6사례(27.3%)씩 이었고 3사례(13.6%)는 마당이 었다(사진 5). 세탁기를 부엌에 둔 경우는 주택 내에 욕실 공간이 따로 없어 부엌 외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였으며 마당에 둔 경우는 부엌과 욕실 공간이 좁기 때문이었다(사진 6). 원 거주지에서 세탁기를 사용했던 경우는 전체에서 12사례(54.5%)였는데 욕실에 두고 사용한

19) 조사대상자들은 베트남의 경우 남부의 호치민이나 북부의 하노이 등 대도시에도 아직 도시가스 설비가 없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조리용 열원은 대부분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고 지역에 따라서 연탄 혹은 장작 등을 사용한다. 온수(溫水)는 전기온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물을 끓여서 사용하고 있다. 냉장고 역시 지역에 따라서는 10집 중 1, 2집만이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다.

20) 부엌의 평균 면적은 부엌이 독립된 공간으로 계획된 18사례(81.8%)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1) 조사대상자들이 원 거주지에서 사용한 욕실 형태는 배스유닛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배스유닛 4사례(18.2%), 배스유닛 + 세면대, 변기 3사례(13.6%), 2배스유닛 + 세면대, 변기, 샤워기 1사례(4.6%) 등이었으며 이 외는, 변기, 세면대, 샤워기 3사례(13.6%), 변기+샤워기(샤워실) 3사례(13.6%), 변기와 샤워시설 2사례(9.1%) 등이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6사례(27.3%)는 마당에 야외화장실과 야외샤워실이 있었다.

22)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마당 한 쪽에 나무로 만든 별도의 샤워실을 두며 옆의 우물에서 물을 퍼서 이 안에서 목욕하는 것이 전통적인 목욕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중 6사례(27.3%)는 원 거주지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목욕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우가 6사례(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엌과 마당, 베란다가 각각 2사례(16.7%)씩이었다. 세탁기의 이상적인 위치로는 68.2%(15사례)가 욕실을 들었으며 7사례(31.8%)가 베란다가를 언급하였다. 베란다가를 언급한 7사례 중 6사례는 현재 아파트 혹은 다세대 주택의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며 1사례는 아파트에 거주했던 경우였다. 세탁기의 이상적인 사용 장소로 욕실을 언급한 경우는 이곳에서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로서 따라서 이는 전적으로 원 거주지에서의 사용 경험에 의거한 결과로 파악되었다. 원 거주지인 베트남에는 일정 기간의 우기(雨氣)가 있어 베란다에 세탁기를 둘 경우 세탁기가 습해질 수 있다. 이는 구소련 지역에서 아파트의 베란다가를 보통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 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대부분 욕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사례 그리고 중국 역시 겨울의 추위로 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욕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사례 등과 공통점이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7; 이영심, 최정신, 2008).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중 현재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6사례 모두 베란다가를 이상적인 장소로 언급한 것은 주거 이동에 따른 주생활에서의 변화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적응과 동화가 앞으로의 선택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23)</sup>

조사대상자들 중 손빨래를 하는 경우는 13사례(59.0%)였으며 그 장소는 부엌과 욕실이 각각 6사례(46.2%) 그리고 베란다가 1사례(7.7%)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원 거주지에서도 16사례(72.7%)가 손빨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손빨래를 한 이유는 원 거주지에서는 세탁기가 비싸 구입하기 쉽지 않으며 세탁기가 있는 경우에도 전기료가 비싸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원 거주지에서 손빨래를 한 장소는 욕실이 8사례(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야외 샤워실(5사례 : 31.3%), 개인 우물 혹은 공동 우물(3사례 : 23.1%) 등이었다. 현재 조사대상자들의 세탁기 보유율은 원 거주지에서의 경우보다 높았으나 조사대상자들이 대부분 손빨래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욕실 계획에는 세탁기 뿐 아니라 손빨래를 위한 공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빨래 삶기를 하는 경우는 전체에서 6사례(27.3%)였는데 5사례는 원 거주지에서도 하였으며 1사례는 이곳에 와서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빨래 삶기의 정도는 재한 고려인의 경우(13.6%)와 유사하였으나 재한 조선족(47.1%)과는 차이가 있었다. 재한 조선족의 58.8%가 부엌에서 조리과 세면, 세탁 등을 병행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빨래 삶기는 관습적인 행위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7; 이영심, 최정신, 2008).



〈사진 5〉 욕실에 세탁기를 두고 사용하는 사례(마장동 H씨택)



〈사진 6〉 부엌이 욕실과 세탁실을 겸하는 사례(왕십리동 J씨택)

이상과 같이 파악된 주공간 관련 내용에 의거하여 각 항목별 원 거주지의 유형과 현재 유형 그리고 앞으로 희망하는 유형을 <표 4>에 정리하였다. 우선 부엌과 거실과의 통합 유무는 원 거주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분리된 경우가 많았으며 희망하는 유형 역시 분리된 형태였다. 베트남의 주거 계획에서 구소련 혹은 중국과 구별되는 특징은 부엌의 출입문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원 거주지와 이곳 모두 부엌의 출입문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희망하는 유형 역시 출입문이 있는 형태였다. 그러나 출입문을 희망하는 비율이 절반(54.5%)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어 주택 계획 시 부엌과 거실의 통합 혹은 분리의 주택 규모에 따

〈표 4〉 주공간 관련 내용의 거주지별 변화

N = 22

지역별 항목별	원 거주지	현재 주거	희망 주거
부엌·거실 통합유무	분리(100.0%)	분리(81.8%)	분리(59.0%)
부엌의 출입문	있음(81.8%)	있음(81.8%)	있음(54.5%)
욕조유무	없음(63.6%)	없음(81.8%)	없음(68.2%)
세탁기 사용장소	욕실(50.0%)	욕실(27.3%)	욕실(68.2%)

23) 선행 연구에서 재한 고려인들 중 현재 베란다에 세탁기를 두고 사용하는 경우(3사례:18.8%)는 모두 세탁기를 둘 적절한 장소로 베란다가를 언급하였다(이영심, 최정신, 2008).

라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욕조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설비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 욕실 계획 시 배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세탁기는 욕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손빨래를 위한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편으로 베란다의 계획 유무에 따라 세탁기의 사용 장소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주택 규모에 따른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주생활

#### 1)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sup>24)</sup>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대부분 부엌 + 방1개(9사례 : 40.9%) 혹은 부엌 + 방2개(8사례 : 36.4%)의 형태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원 거주지에서 평균 2.6개의 방을 가진 아파트 혹은 단독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25)</sup> 조사대상자들의 86.4%(19사례)가 원 거주지에서 사용한 방이 이곳보다 컸음을 언급하였는데 현재 평균 2.7m × 3.2m인 방에 대한 만족 정도가 평균 3.1점으로 보통인 것은 이에 의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sup>26)</sup> 조사대상 주택 중 거실 공간이 있는 경우는 전체에서 5사례(22.7%)였는데 4사례(18.2%)는 아파트, 1사례(4.5%)는 다세대 주택이었다.<sup>27)</sup> 모든 조사대상자들이 원 거주지의 주택에 거실이 있었음을 언급하였으며 1사례(4.5%) 이외에는 모두 거실에 소파 혹은 의자 등을 두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거실에 침대를 놓고 침실을 겸한 경우가 3사례(13.6%)가 있었으며 거실의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였던 경우는 12사례(54.5%)로써 원 거주지의 거실은 단란과 접대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남부가 4사례(18.2%:시골지역 3사례), 북부가 8사례(36.4%:시골지역 6사례)였다. 즉, 바닥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남부보다 북부에서 많았고 두 지역 모두 도시보다는 시골이 많았는데 지역별로 식사 장소가 어떻게 다른지 또한 입식과 좌식의 정도는 어떤지 그리고 그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여 이는 현지(現地)조사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

조사대상자들의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는(표 5)와 같다. 먼저 취침의 경우 침대에서 취침하는 경우가 16사례(72.7%)였으며 바닥에서 좌식으로 취침하는 경우가 5사례(22.7%) 그리고 침대와 좌식을 병행하는 경우가 1사례(4.6%)였다. 조사대상자들 모두 원 거주지에서 어릴 때부터 침대를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현재 이들은 취침 행위에서 본래의 관습을 강하게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좌식으로 취침하는 경우는 모두 방 크기가 작기 때문이었는데 이들이 좌식 취침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바닥재가 비닐이므로 차갑지 않고 원 거주지에서의 식사 행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좌식 생활에 그 만큼 익숙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좌식 취침을 하고 있는 6사례 중 5사례가 원 거주지와 이곳에서 모두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음을 언급한 결과는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사진 7).

식사 행위는 식탁을 사용하는 경우가 5사례(22.7%)였고 교자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11사례(50.0%) 그리고 식탁과 교자상을 겸하는 경우가 1사례(4.6%)였으며 상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경우도 5사례(22.7%)가 있었다. 그러나 많은 가족원 혹은 손님들을 접대할 때는 대부분(20사례 : 90.9%) 바닥에 앉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바닥에서의 식사는 매우 보편적인 행위로 분석되었다(사진8). 조사대상자들의 원 거주지에서의 식사는 주로 식탁을 사용한 경우가 15사례(68.2%)였으며 주로 바닥에서 한 경우가 7사례(31.8%)였는데 식탁을 사용한 이들 중에서도 5사례(22.7%)는 가족원이 많이 모일 때에는 바닥에서 식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베트남인들의 식사 행위가 서구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전통적으로 바닥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 입식과 좌식을 병행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은 식사 행위에서 이들의 관습을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28)</sup> 화장은 주로 서서(10사례 : 55.6%)하고 있었으며 다림질(12사례 : 92.3%)과 독서(11사례 : 64.7%) 그리고 가계부 정리(10사례 : 62.5%)와 손빨래(13사례 : 100.0%) 등은 모두 좌식 위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86.4%(19사례)가 평소에 김치를 먹고 있었는데 이 중 9사례(40.9%)는 직접 담가 먹고 있었다. 이들은 배추 씻기는 모두 서서 하였고 버무리기는 88.9%(8사례)가 부엌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자들 중 77.3%(17사례)가 원 거주지의 집에 불단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토속신

24)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20.0%(9사례)가 방 1칸에서 거주하였으며 1사례(4.5%)는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부엌+방2칸인 경우가 8사례(15.0%)였으나 이 중 3사례(37.5%)는 친구에게 월세를 놓은 경우였으며 1사례(12.5%)는 아이들을 베트남으로 보낸 후 방이 빈 경우였다. 이와 같이 공간 별 주생활의 분석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만을 분석하였다.

25) 베트남의 복층(復層) 건물에서 부모 혹은 형제가족 별로 한층씩 거주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거주하는 층(層)만을 포함하였다.

26) 원 거주지 주택의 경우 대부분 방의 크기가 모두 유사하며 거실에 침대를 놓고 침실을 겸하는 사례가 많다. 원 거주지의 주택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천장이 매우 높으며 창문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27) 조사대상자들 중 독립된 거실 공간이 있는 5사례 모두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였으며 이 경우는 다른 사례들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28)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베트남의 전통적인 식사 양식은 바닥에 발을 깔고 그 위에 밥과 반찬을 놓고 둘러앉아 먹는 형식을 언급하였다.

〈표 5〉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

N = 22

주생활내용 \ 기거양식	입식(%)	좌식(%)	겸용(%)
취침(가족)	16(72.7)	5(22.7)	1(4.6)
가족식사	5(22.7)	16(72.7)	1(4.6)
손님접대(식사)	2(9.1)	20(90.9)	·
가족단란(TV시청)	2(9.1)	11(50.0)	9(40.9)
화장	10(55.6)	7(38.9)	1(5.5)
독서	6(35.3)	11(64.7)	·
가계부정리	5(31.3)	10(62.5)	1(6.2)
다림질	1(7.7)	12(92.3)	·
손빨래	·	13(100.0)	·
김치담그기 (배추씻기)	9(100.0)	·	·
김치담그기 (버무리기)	1(11.1)	8(88.9)	·

\* 주생활 중 조사대상자들이 하지 않는 내용은 제외하였음.



〈사진 10〉 베트남의 휴식도구인 해먹(병)을 걸어둔 사례 (왕십리동 V씨택)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27.3%(6사례)는 이곳에서도 불단(반터)을 차려놓고 그 관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외에 조사대상자들이 취침 시 모기장(몽)을 사용하거나 휴식 시 해먹(병)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 역시 원 거주지의 관습을 지속하는 예로 해석되었다(사진 9; 사진 10). 한국인과 결혼한 조사대상자 10사례(45.5%)중 4사례(18.2%)가 우리나라 식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 2) 공간별 바닥재의 구성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 구성은 (표 6)과 같다. 조사대상제한 베트남인 주택의 침실과 거실 바닥재는 모두 비닐(vinyl)이었다. 부엌의 경우 15사례(68.1%)는 비닐 그리고 7사례(31.8%)는 타일(tile)이었으며(사진 11)(사진 12), 욕실의 경우 욕실이 실내에 있는 16사례(72.7%) 모두 타일 바닥재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있어 이곳 주택의 바닥재는 원 거주지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원 거주지 주택의 바닥재는 거실의 경우 흙바닥인 1사례 외에는 모두 타일 바닥재였으며 침실의 경우 흙바닥 1사례와 흙바닥을 비닐 바닥재로 바꾼 1사례 외에 90.9%(20사례)가 타일 바닥재로 파악되었다.<sup>29)</sup> 부엌 역시 실내에 있는 경우는 타일이 보편적이었으며 외부에 있는 경우는 흙바닥 혹은 타일 바닥재였다. 이와 같이 원 거주지에서 타일 바닥재가 보편적인 이유는 기후에 의거한 것인데 덥고 습한 날씨에는 타일과 같은 찬 바닥재가 적합할 뿐 아니라 특히 우기(雨氣)에 바닥이 습해지는 경우에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90.9%:20사례)의 조사대상자들이 원 거주지에는 타일 바닥재가 적합하고 이곳에는 비닐 바닥재가 적합함을 언급하였는데 이곳에서의 비닐 바닥재에 대한 만족 정도가 평균 4.1점인 결과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다. 조사대상자들



〈사진 7〉 취침은 조절 가능한 입식(매트리스)으로 일상생활은 좌식으로 하는 사례(송정동 K씨택)



〈사진 8〉 취침은 입식(침대)으로 식사는 좌식으로 하는 사례 (월곡동 E씨택)



〈사진 9〉 베트남의 토속신앙인 제단(반터)을 벽에 만든 사례 (왕십리동 J씨택)

29) 침실의 흙바닥을 비닐 바닥재로 바꾼 경우는 조사대상자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써 결혼 후에 남편이 친정 집의 침실 바닥재를 비닐로 바꿔 주었다.

〈표 6〉 공간별 바닥재의 구성

N = 22

공간별 바닥재료	거실 f(%)	침실 f(%)	부엌 f(%)	욕실 f(%)
비닐장판	22(100.0%)	22(100.0%)	15(68.2%)	·
타일	·	·	7(31.8%)	16(100.0%)
계	(100.0)	(100.0)	(100.0)	(100.0)



〈사진 11〉 침실이 비닐 바닥재인 사례(정릉동 B씨택)



〈사진 12〉 부엌 바닥재가 타일인 사례(송정동 B씨택)

의 나무 바닥재에 대한 선호 정도는 전체의 5사례(22.7%)로 높지 않았는데 이는 재한 고려인의 85.0%(17사례)가 나무 바닥재를 이상적으로 평가하였고 중국 거주 조선족 역시 나무 바닥재에 대한 선호 정도가 높았던 결과와 차이가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7; 이영심, 최정신, 2008).

### 3) 실내에서의 신발 착탈과 현관 계획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신발 수납을 위하여 박스(8사례 : 36.4%)나 선반 형태(14사례 : 63.6%)의 신발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주택의 19사례(86.4%)가 현관에 단차가 있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의 현관 단차에 대한 만족 정도는 평균 4.0점이었다. 조사대상자들 중 20사례(90.9%)가 원 거주지의 현관에 신발 착탈을 위한 단차가 없었음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원 거주지에서는 현관 밖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원 거주지의 경우 신발 보관을 위한 신발장 역시 없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는 기후 면에서 볼 때 남부 지역은 건기(乾期)와

우기(雨氣)로만 그리고 북부는 그 변화가 극심하지 않은 사계절로 구성되어 있어 신발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원 거주지에서는 신발을 대개 현관 문 밖에 벗어두거나 혹은 방으로 들고 가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으로 조사대상자들의 81.8%(18사례)가 원 거주지의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내에서 신발을 신었던 4사례(18.2%) 중 3사례는 북부에서 거주한 경우였는데 북부는 겨울에 타일 바닥이 차기 때문에 신발을 신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재한 베트남인들이 현관의 단차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결과는 주거 이동에 따른 새로운 계획 요소에 적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관습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재한 고려인과 재한 조선족이 원 거주지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현관의 단차를 선호하였던 결과와 공통적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중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 경우는 2사례(9.1%)에 불과하였다. 원 거주지에서 슬리퍼를 신었던 경우는 북쪽의 경우 5사례(22.7%), 남쪽의 경우 1사례(4.5%)였는데 북쪽의 경우는 겨울에 바닥이 차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는 슬리퍼 착용이 관습으로 자리 잡은 고려인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사료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7; 이영심, 최정신, 2008).

### 4) 난방방식의 종류와 평가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은 19사례(86.4%)가 가스 그리고 2사례(9.1%)가 기름을 사용하는 온수바닥 난방방식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난방에 대한 만족 정도는 평균 3.9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원 거주지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난방 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사계절이 있는 북부에는 전기난로 등의 부분 난방을 사용하고 있다.<sup>30)</sup> 조사대상자들의 바닥난방 방식에 대한 평가는 따뜻한 바닥과 공기로 인해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는 2사례(9.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에 적응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모든 조사대상자들이 라디에타 등의 공기를 덥히는 난방보다는 바닥난방 방식이 이상적임을 언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침대와 라디에타 난방방식에 익숙한 재한 고려인과 재한 조선족 역시 이곳의 바닥난방 방식에 만족하였으며 가장 이상적인 난방방식임을 언급한 바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7; 이영심, 최정신,

30) 베트남의 남부 지역은 항상 온난한 기후이므로 주택에 난방 설비가 되어 있지 않다. 겨울이 존재하는 북부 지역 역시 극심한 추위가 없어 주택에 난방 설비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전기난로 등의 난방 도구를 사용한다. 따라서 북부 지역 출신의 재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가족에게 선물로 보내기도 한다.

2008). 이는 바닥난방 방식이 타(他) 문화권에서 생활한 이주자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더운 지역에서 난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재한 베트남인이 이에 만족함은 바닥난방 방식이 보편적인 난방방식으로써 어느 지역이나 보급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자 중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에서 8사례(36.4%)였는데 사용 이유는 침대 위가 춥기 때문에(4사례 : 50.0%) 혹은 방이 춥기 때문에(3사례 : 37.5%) 그리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1사례 : 12.5%) 등이었다.

#### 5) 기타 주거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자들은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등의 주거비용으로 한 달 평균 약 1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담 정도는 평균 4.1점으로 그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재한 고려인의 경우 월 평균 10만원 그리고 재한 조선족의 경우 월 평균 15만원으로 그 부담 정도가 모두 보통이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7; 이영심, 최정신 2008). 더구나 조사대상자들은 자가(4사례)와 전세(6사례)를 제외한 12사례(54.5%)가 한 달 월세로 평균 25.2만원을 지불하고 있어 총 수입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3.1%로 그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되었다.<sup>31)</sup>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4.1년이었으며 이주 횟수는 평균 2.1년이었다. 현재 주거의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는 전체에서 9사례(40.9%)로써 더 작은 집 혹은 더 싼 집을 바라는 2사례 외에는 모두 더 넓고 좋은 집으로의 이주를 희망하였다.<sup>32)</sup> 조사대상자들이 주택을 얻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직장과거리(7사례 : 31.8%)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재한 조선족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우선 조건으로 꼽았던 것과 공통점이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7).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부엌(8사례 : 42.1%)이었으며 잘 꾸며놓고 싶은 공간은 거실(8사례 : 44.4%)이었다. 또한 주택 건축 시 혹은 주택 구입 시 주택의 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0사례(45.5%)로 이들의 주거 문화에서 주택의 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이 파악된 조사대상자들의 주생활 내용에서 이주 후에도 지속되는 주거 문화 요소와 이곳의 주거 문화에 동화된 요소 그리고 앞으로 동화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표 7>에 정리하였다. 재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은 원 거주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엌과 거실 공간의 분리를 희망하였으나 이들의 반 정도는 부엌의 출입문이 없어도 무방하다고 함으로써 계획 상 부엌과 기타 공간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욕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베란다에서 사용

해 본 경우는 모두 베란다를 선호함으로써 계획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욕실에는 원 거주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욕조가 없어도 무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기거양식 중 관습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항목은 입식 취침이었으며 식사 역시 전통으로 이어져 온 좌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전통적인 좌식 식사가 바닥에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좌식 식사는 교자상을 사용하는 것인데 조사대상자들이 이곳에서 교자상을 사용하는 좌식 식사에 익숙한 것은 이곳의 주생활에 동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원 거주지에는 없었던 바닥 난방과 현관의 단차를 선호하는 결과 역시 이주 후에 이곳의 주생활에 동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시와 안산시, 성남시, 인천직할시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 이주 노동자 22가구의 주거 및 주생활을 조사하여 이들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의 주거 문화 요소를 분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주택은 부엌과 방 1, 2칸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자들은 부엌이 기타 공간과 분리된 형태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절반 정도가 원 거주지에서의 관습대로 부엌에 출입문이 없어도 괜찮다고 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부엌 계획은 규모에 따라 통합형과 분리형을 적절하게 조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둘째, 조사대상 주택의 욕실에는 욕조가 거의 없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욕조에 대한 필요 정도 또한 낮았다. 이는 덥고 습한 원 거주지에서 간편하게 자주 씻는 방식에 익숙한 것이 그 원인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들에게 욕조의 필요 정도가 낮은 것은 이곳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일 뿐 아니라 원 거주지에서의 목욕 관습을 지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원 거주지에서는 사용하기 힘들었던 온수(溫水)와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생활에서 향상된 점으로 언급하였고 현재 욕실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면적의 협소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욕실 계획 시 이들의 관습에 따

31) 월세 지불방식으로 거주하는 12사례 중 6사례가 보증금을 낸 경우였고 그 평균액은 233만원이었다.

32) 현재보다 더 작은 집을 희망하는 경우는 이곳에서 아이 두 명을 낳아서 키우다가 최근 베트남의 부모님 댁으로 모두 보낸 경우로써 현재 거주하는 방 2개짜리 집에서 방 1개짜리의 집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였다.

라 욕실에 세탁기를 두고 손빨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여 온 조사대상자들이 모두 베란다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세탁기의 사용 장소는 주거 계획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셋째, 원 거주지에서 거의 입식이었던 조사대상자들의 기거양식은 현재 이곳에서는 취침의 경우 침대의 사용을 지속하고 있었고 식사는 원 거주지에서와는 달리 좌식 위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어릴 때부터 침대를 사용하여 온 것을 고려할 때 이곳에서의 침대 사용은 그 관습을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사의 경우 이들은 교자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바닥에 앉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좌식의 식사 행위는 원 거주지가 서구화되기 이전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이들에게는 관습적인 것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이 이곳에서 행하는 좌식의 식사는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에 의거한 것일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들의 관습을 지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재한 고려인과 재한 조선족 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닐 바닥재였다. 원 거주지인 베트남은 뜨겁고 습한 기후에 대한 대응책으로 타일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기타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특징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양 지역에서 각기 다른 바닥재가 사용된 배경과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현재 이곳의 바닥재에 대한 적응 정도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섯째,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했던 원 거주지 주택의 현관에는 대부분 신발 착탈을 위한 단차가 없는데 이는 원 거주지의 경우 현관 밖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이 관습이기 때문이며 신발을 보관하는 신발장 역시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이곳에서 대부분 현관 단차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아 이들이 이곳의 신발 착탈 방식에 적응,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원 거주지인 베트남은 남부와 북부 모두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난방 시설이 없으며 북부의 경우 전기난로 등 부분 난방을 사용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모든 조사대상자들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바닥 난방을 접하였는데 이들의 난방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을 뿐 아니라 바닥 난방이 이상적인 난방방식임을 언급함으로써 이들이 이곳의 난방방식에 적응하고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온수바닥 난방 방식은 조사대상자들에게 극심한 차이로 느껴질 수 있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한 베트남인들이 주거지를 이동한 후 주생활에서 관습을 지속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곳의 주거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된 부분 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주거 및 주생활과의 비교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재한 베트남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를 위한 계획 요소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2006). 외국인근로자 정주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6-11.
- 국가인권위원회(2002).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 노동부, 법무부(2008.9.25). '외국인력 도입,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도록 개편' - 보도자료.
- 매일경제(2008.2.5 제13068호 1면). '한국 10년 내 다민족국가 된다'. 보도자료.
- 박채란(2004). **국경없는 마을**. 경기도: 서해문집.
- 부썬투이(2002). **베트남 베트남사람들**. 배양수(역). 서울: 대원사. (2000년 원저발간).
- 석현호, 정기선, 이정환, 이혜경, 강수돌(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경기도: 지식마당.
- 연합뉴스 인터넷판(2008.10.22). '인권위, 부산 이주노동자, 노동, 주거환경 열악'.
- 유엔 티 향(2008. 8. 2). '재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의 날'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축사 자료.
- 이영심, 최정신(2007). 재한(在韓) 조선족(朝鮮族)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 계획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5(9), 15-26.
- 이영심, 최정신(2008).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高麗人)주거에서의 지속과 변화-재한(在韓)고려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6(8), 55-72.
- 이희봉(1998). 재미 교포 주거 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 현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1), 103-114.
- 중앙일보(2007.7.8 제17호 10면). '서울 속 외국인 마을 10곳 심층해부'. 보도자료.
- 프라임경제 인터넷판(2008. 5. 19). '결혼이민자 11만 6,000 여명...다문화 사회 임박'. 보도자료.
- 한겨레 21(2007.10.2 제678호 108-116면). '이주민 100만 시대, 아름다운 모자이크' 보도자료.
- 한겨레신문(2006. 12.23 제5868호 5면). '이주노동자 주거 열악 정부 지원대책, 아직은...'

한국일보 인터넷판(2008.4.21). '외국인 노동자 150만 시대 <上> 외국인 밀집촌, 원곡동, 보도자료.  
<http://cafe.daum.net/mburian/Jix/3> 안동지역 외국인이 주여성회 <우리는 그래서, 한국으로 간다> ③베트남, 그들의 코리아안 드림. 2008.3.22.  
<http://kin.naver.com/popup/opendic> 재정경제부-경제통 <비전2030> ⑥외국인근로자법·인권차별 더 이상 없

다. 2006.11.7.  
<http://www.foa2002.or.kr/> 아시아의 친구들 <지역과 이주 노동 정책> 2008. 2.6.

접 수 일 : 2008년 10월 31일

심사시작일 : 2008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9일